

광주 동구, 총장로 공실률 직접 들여다본다

광주지역 대표 중심가인 동구 총장로 내 공실률에 대해 자치구가 직접 상권 재조사에 나선 방침이다.

14일 광주 동구와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광주지역 대표 중심가인 총장로 상권에 대해 일대를 포괄하는 '급남로·총장로 상권'으로 묶어서 분기별 상가 공실률을 발표하고 있다.

상권 내 상가에 대해서는 중대형상가·소규모상가·오피스·집합상가 등 4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공실률을 공개 중이다. 상권 내 표본건물을 선정, 표본 공실면적 합을 해당 지역 표본의 총 임대가능 면적으로 나눠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부동산원 조사 결과 올해 지난 2분기 급남로·총장로 상권의 공실률은 중대형상가 25.33%, 소규모상가 13.56%, 오피스 44.83%, 집합상가 25.11%로 파악됐다.

앞선 같은 해 1분기 급남로·총장로 상권 공실률은 중대형상가 26.42%, 소규모상가 10.05%, 오피스 45.04%, 집합상가 25.11%로 집계됐다.

동구는 부동산원의 이같은 발표 내용에 대해 지역 실정을 헤아리지 못한 허수가 섞여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원이 지정하고 있는 급남로·총장로 상권 구역은 총장로 1~5가 뿐만 아니라 동구 대인동과 궁동·서남동·수기동·호남동·불로동 및 북구 소제·누문동 일대를 합친 구간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원이 조사하고 있는 상업용부동산에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가 포함돼 전체 상가 공실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부동산원 발표 공실률, 표본 조사·상권 설정 '무리수' 10월중 자체조사... 총장로 한정 공실률 상세 발표

이에 동구는 다음 달 중 행정구역별 수준으로 한 총장로 1~5가 내 상권 공실 조사에 나선 방침이다.

2개월 동안 조사에 상권 내 오피스를 제외한 전 상가를 대상으로 공실률 조사에 착수, 기초 자료를 만들어 추후 분기별

로 자체 조사 정례화에 나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부동산원의 공실률 조사는 상권 내 전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표본 상가의 공실률만 조사하고 있는 형태로 표본오차가 7~15%

에 달한다"며 "상권 구역을 행정 구역이 아닌 복구의 일부 지역이 포함된 주변 상권까지 모두 포함한 지역으로 설정하면서 공실률의 허와 실을 다루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체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자료 정리, 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역 내 또 다른 상권의 공실률 조사와 공실률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철수 기자

광주지역 2026년 대학 수시모집 '의학·보건계열' 강세

광주지역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지역 대학에 따르면 전남대는 3977명 모집에 2만5055명이 지원해 평균 6.3대 1(정원 내 6.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6.31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교과(일반) 전형은 1182명 모집에 7890명이 지원해 6.68대 1(지난해 6.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해당 전형 최고 경쟁률은 가정교육과로 19.67대 1이다. 의학과는 학생부교과 전형이 5.46대 1, 학생부종합이 16.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선대는 4629명 모집에 2만2830명이 지원해 4.93대 1(정원내 5.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년도 경쟁률 4.67대 1과 비교하면 0.26%포인트 상승했으며, 지원자 수는 1471명이 증가했다.

전형별로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5.09대 1,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5.24대 1, 학생부종합 면접전형 9.83대 1, 학생부종합 서류전형 4.50대 1, 실기·실적(실기전형) 3.88대 1로 집계됐다.

호남대는 1574명 모집에 7386명이 지원해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물리치료학과 11.5대 1, 뷰티미용학과 7.67대 1, 치위생학과 7.13대 1, 임상병리학과 6.94대 1, 반려동물산업학과 6.82대 1, 간호학과 6.75대 1을 기록하며 보건계열 학과가 강세를 보였다.

광주대는 최근 7년 내 가장 높은 5.3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응급구조학과 12.18대 1, 간호학과 8.49대 1, 뷰티미용학과 8.28대 1, 호텔조리제과제빵학과 8.13대 1, 반려동물보건산업학과 7.35대 1, 경찰행정학과 7.27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신대는 1420명 모집에 5903명이 지원해 4.2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3.53대 1(5250명지원)에 비해 지원자가 12.44% 상승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한의예과로 8명 모집에 221명이 지원해 27.6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의예과 지역학생 2 전형은 15.7대 1, 지역학생1 전형 9.81대 1, 지역사회균형전형 9.5대 1로 집계됐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11~12월 사이 전형별로 발표한다. /오권철 기자

진월IC 공사구간 출근길 혼잡 민원... "연말 완공시 정체해소"

진월·노대동, 용산지구 교통흐름 개선 IC개통 공사중

광주 제2순환도로 진월IC 공사구간 인근 갓길에 폐쇄되면서 출근길 교통 정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광주시종합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남구 진월IC 공사구간에 교통 불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순환도로(용산지구→진월동 방면)에서 진월수변공원으로 향하는 3차로 규모 갓길을 폐쇄하면서다.

남구 계서관에는 "출근길 진월교차로 일대가 막힌다"는 불편글이 잇따랐다. 시 종합건설본부에는 폐쇄 첫날부터 나갈간 매일 수십건의 교통 불편 민원이 접수됐다.

건설본부는 진월IC 개통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갓길을 막고, 이 구간을 순환도로 진입로로 바꾸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본부는 폐쇄에 따른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진월동으로 나가는 또다른 새 IC 구간을 미리 개통했다. 하지만 임시 개통한 도로가 기존 갓길인 3차로보다 좁은 1차로인 탓에 병목 현상이 발생,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IC공사구간은 출근길마다 긴 차량 줄이 늘어서고 있다.

건설본부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곳곳에 우회 현수막을 붙이고 교통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건설본부는 올해 연말까지 IC공사를 마치면 임시개통한 내리막길도 3차로로 넓어지고, 순환도로로 향하는 진입로가 생기면서 교통 체증이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월IC개설 공사는 광주시가 진월동·노대동·용산지구 교통 흐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15억원을 받아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로 차질 없이 진월IC를 개통하겠다"며 "완공 이후에는 교통 정체가 해소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양육막막' 청소년부모, 학업·생업포기... 月50만원도 없다

광주 청소년부모들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학업 중단을 선택,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출근이나 등교를 포기하는 사례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광주 북구가 관내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15세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부모 가정의 73%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을 하지 않는 이유로 55%가 양육·출산을 꼽았다. 절반이 넘는 58%가 수입원으로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본인·배우자 근로소득은 27%에 불과했다. 15%는 가족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의 일 경험은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42%, 계약직 15%였다. 근로 경험이 없는

광주 북구 실태조사, 무직 73%... 수입 '정부의존' 58% 휴학·자퇴는 40%... 월수입 '49만원 이하' 33%에 달해 양육에 '학업·취업' 병행은 불가능... 자립 기반 우려돼

경우도 12% 수준이었다. 청소년부모 대다수가 안정적인가나 전문적인 일을 하기보다 단기간 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근로 활동에 참여, 자녀 돌봄으로 인해 일을 이어가기 힘든 실정이다.

월평균 수입에 대한 질문에 33%가 '49만원 이하'라고 답했다. 한달에 50만원도 되지 않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어 '100만~199만원' 33%, '200만~249만원' 27%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지출하는 항목은 식비·의료·보험비가 32%로 가장 많았다. 기저귀·분

유·교육 28%, 주거비 24% 순이었다. 이들 중 80%가 본인 혼자나 배우자와 함께 주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절반이 넘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출근·등교를 포기한다는 비율은 67%에 달했다. 청소년부모 40%가 휴학이나 자퇴를 선택했다. 학업 중단 이유는 자녀돌봄(44%)과 경제적 어려움(44%)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 구성원을 보면 자녀랑만 사는 가정은 46%로 가장 많았다. 자녀·배우자와

거주하는 가정이나 자녀·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 각 27%로 조사됐다.

이들은 청소년부모로서 겪은 어려움으로 경제적 여유 부족과 불편한 사회적 시선, 아이 맡길 곳 부재 등을 꼽았다.

꼭 필요한 지원으로는 일자리와 아기 발달 장난감, 자녀 학원비·문화생활비, 양육비 인상 정책 등이 있다고 답했다.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청소년부모 대부분이 경제적 부담과 돌봄 공백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돌봄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게 현실상 불가능해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구 관계자는 "관내 청소년부모들을 위한 맞춤형 경제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각종 지원책과 사업 발굴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